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SIN: 신조선가치수 152p, 중고선가치수 182p

Clarksons에 따르면, 신조선가치수는 152p(+2p, WoW), 중고선가치수는 182p(+0p, WoW)를 기록함. 지난해, 현대중공업이 114,000DWT급 LR2 4척을 수주함. LNG이중연료 선박으로 2023 3분기-2024년 2분기에 인도될 예정임. 삼성중공업은 174,000CBM 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함. 2024년말 인도될 예정임. 현대미포조선은 2,500TEU급 피더선 2척을 수주함. 2023년 4분기 인도예정임. (Clarksons)

### 현대미포조선, MR탱커 수주전

현대미포조선이 50,000DWT급 이중연료 MR탱커 12척을 놓고 중국 조선업체들과 수주전을 하고 있음. 선주는 EuroGreen Maritime이고, 납기는 2024년으로 제시함. (선박뉴스)

### '컨'시장 일단 숨 고르기

컨테이너선 운임과 용선료가 피크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호황이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도됨. 최근 중국-미국 동/서안 항로 운임은 1주일 동안 -6% 하락해 9월의 피크보다 -22%나 하락함. 중국의 춘절이 12주 남은 상황에서 운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유조선 시장 곧 별든다

탱커 사이클과 LNG가격 상승으로 1.4mbpd 가량의 원유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도됨. 발전소들이 연료를 가스에서 석유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탱커 발주 잔량도 많은 상황임. (선박뉴스)

### Qatar expansion scheme: Chase begins for giant Gallaf offshore development project

카타르 NOC가 카타르의 최대 유전인 Al-Shaheen을 포함한 Gallaf 3단계 FEED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. (Upstream)

### 'Our last, best hope': World's focus falls on Glasgow for crucial COP26 climate summit

31일 영국에서 UN COP26 정상회의가 개막함. 6년 전 파리에서 약속한 '기온 상승폭 1.5도' 사수가 궁극적 목표임. 한편, 로마 G20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에서는 기온 상승을 1.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노력한다고 합의함. (Upstream)